

전주시 인증 업체 친환경 제품, 독일 진출

바이전주 우수업체 인에코, 유럽시장 수출 계약 '쾌거' ... 기능성 친환경 건축자재 '아이에코 블록' 수출

전주시가 품질을 인증한 지역 업체 제품이 유럽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전주시는 바이전주 우수업체인 (주)인에코의 친환경 기능성 제품이 친환경 기준이 까다로운 유럽 독일시장에서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아 수출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전주시가 품질을 인증한 바이전주 우수업체인 (주)인에코의 친환경 기능성 제품이 유럽 독일시장에서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아 수출에 성공했다.

이번에 수출이 성사된 (주)인에코의 제품 '아이에코 블록'은 수분 및 악취 성분 흡착, 방사능 물질 미배출, 방충 기능 등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의 습도, 환경 유해물질, 악취 등 많은 환경 문제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이다.

이 제품은 지난 2019년 전주시가 품질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에 선정됐으며, 현재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이기도 하다.

업체는 최근 20만 불 규모의 '아이에코 블록' 제품을 배에 실어 보냈다. 이달 말 독일에 도착하는 이 제품은 독일 시장 공략을 위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인에코의 유럽 진출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경

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품질과 시장성을 가진 제품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재무 (주)인에코 대표는 "친환경 제품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유럽, 특히 독일에 진출하게 된 것은 우수한 제품을 선별해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주시와 친환경 제품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환경산업 협회의 도움이 컸다"면서 "앞으로 독일 시장을 거점으로 유럽 전역 및 세계로 시장을 확대해 기능성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에서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인에코는 2019년에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전주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품 홍보, 신규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이번 독일 수출은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는 오는 11일까지 전주시청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인 '나를 찾는 아카데미' 여름방학 몰입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름방학 몰입집중 프로그램

전주시 야호학교, 영화 인문학 · 나찾아 퓨처랩 등 진행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오는 11일까지 전주시청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인 '나를 찾는 아카데미' 여름방학 몰입집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몰입집중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치배움터이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야호학교가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관심 분야 및 주제를 2~3일에 걸쳐 집중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번 여름방학 몰입집중 프로그램은 △청소년 영화 인문학 △나찾아 퓨처랩 △요리 지역나눔 활동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5~27일 진행된 '청소년 영화 인문학'은 참여한 청소년들이 영화를 매개로 자신의 꿈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첫날 영화를 함께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낸 뒤, 둘째 날에는 빛나는 하바리움(특수한 용액을 붓고 가공한 식물이나 말린 꽃 등을 넣은 유리병)을 만들어

보며 '나'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각자 소중한 꿈을 담은 도자기를 직접 빚어보기도 했다.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나찾아 퓨처랩'은 청소년들이 M-BLOCK(블럭코딩)과 RC카 코딩을 배우고, 자율주행과 원격 주행 등을 체험하는 등 4차 산업 혁명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슈와 관련된 분야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끝으로 '요리 지역나눔 활동'은 주기와 음료 등을 만들어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찾아가 전달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지역 나눔 활동이다.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야호학교 관계자는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현실은 학교와 학원 등을 다니느라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면서 "평소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로 진행된 야호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포레들과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체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 디지털 전환 활성화 '맞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북경제통상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우수 소상공인 발굴 · 사업 홍보 · 지원 등 협력키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이 3일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과 지역 내 디지털커머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디지털커머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이 지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우수 소상공인 발굴과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전주는 물론이고 전북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사업에 선정돼 현재 라이브커머스에 최적화된 5개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를 갖춘 '소담스퀘어(소담공간) 전주'를 운영하고 있다.

소담스퀘어 전주는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의 라이브커머스 및 온라인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등 1000건이 넘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했다.

올해도 디지털 전환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모집해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 등 라이브커머스 지원에 힘쓰고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전문기관인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소상공인 비대면 경영 전환 지원사업과 소담스퀘어 전주의 인프라를 연계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서관서 부모와 함께 배우는 탄소중립

전주시, 8월 한 달 간 매주 토요일 교육 실시

전주시는 8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전주시립 금암도서관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탄소중립 시민강사 4명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 주제는 △기후위기의 원인과 생활속 탄소중립실천 알아보기(6일)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문제 인식 및 자원 순환의 필요성 이해, 분리배출 방법 배우기(13일) △재활용과 생활용품에 대한 이해 및 양말 목공예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20일) △탄소흡수원과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이해, 아쿠아포닉스 만들기(27일) 등이다.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이 모여 교육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 향후 생활계획 등을 공유하는 '소감나누기' 시간



이 진행된다. 교육 인원은 선착순 40명가량이며,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해 8월 중 실시되는 탄소중립 웹툰공모전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과 함께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면서 "이후에도 시민들께서 탄소중립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서 부부 흥기로 찌른 50대 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검거

부부를 흥기로 찌른 50대가 도주 2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도로에서 B(40)씨와 C(37·여)씨를 흥기로 찌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

B씨와 C씨는 각각 목과 가슴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차를 타고 고속도로로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후 1시 30분께 서대전IC 인근 호남고속도로 노상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를 가로막고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을 흥기로 찌른 등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